

민주당은 짹짹했고, 보수는 버텼다

- 깨어난 469만 표와 위험 분배의 정치

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였다. 그러나 만족할 수도 없고, 미래를 낙관할 수도 없는 짹짹함이 남았다.

이 보고서의 핵심 명제는 단 하나다.

“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동원과 릴레이형 결집”

민주당 지지층은 ‘이번에는 보수를 압도할 수 있다’는 각성된 효능감으로 먼저 사전투표장에 나왔고, 국민의힘 지지층은 ‘이대로면 보수가 진짜로 무너진다’는 위기감으로 본투표장에서 릴레이형 결집을 이뤘다. 그 결과 전국 투표율은 50.9%에서 61.0%로 +10.1%p 뛰었고, 투표자는 약 469만 명 늘었다.

이 보고서가 줄곧 따라가는 두 번째 명제는

“잃을 게 있는 사람일수록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왔다.”

고용된 사람, 집 가진 사람, 상용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투표했다. 그 투표의 동인은 효능감이든 위기감이든 결국 자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. 같은 거시·생활경제 변수(물가·환율·자산·고용)가 지역마다 다른 위험으로 번역됐을 뿐이다. 이것이 이번 선거를 “위험 분배 투표(Risk-Allocation Voting)”로 부를 수 있는 이유다.

이번 선거는 “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 동원”이면서, “위험 회피의 정치”가 작동됐다.

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논리는 단 하나. — 누가, 어디서, 어떤 위험을, 어떤 선택지로 즐겼는가.

● 두 진영에 대한 동시 진단: 민주당의 숙제와 국민의힘의 한계

민주당이 받은 것

- 광역단체장 12석, 투표율 +10.1%p 상승의 동력
- 4050의 압도적 결집(70%대 지지)
- 충청권 석권, 부산·울산 전환, 강원 전환
- 17개 시도 중 대부분 민주 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상회(후보 풀의 우위)
- 그러나: 정부 안정론은 49.0%에 그쳐 50%를 넘기지 못함
- 그러나: 서울 광역비례 동률, 시장 패배
- 그러나: 20대 남성 33.0%의 낮은 지지
- 그러나: 2030 여성 동원 약화 신호(4·5월 서울시장 정원오 vs. 오세훈 30대 격차 SBS 3% → CBS 13.8%)

국민의힘이 잃은 것/지킨 것

- 광역단체장 12석 → 4석으로 폭락
- 그러나: TK 결집, 20대 남성 55.8%, 70세 이상 59.3%(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)
- 그러나: 서울 광역단체장 승리, 광역비례 지지율 무승부(오세훈 +5.49%p 인물 프리미엄)
- 그러나: 정부견제론 42.9% 기반 확보
- 그러나: 'shame 보수' 응답 회피로 출구조사상 보이지 않는 지지층의 존재 확인

● 2026 지방선거: 6대 포인트

1. 이번 선거는 “이동”이 아니라 “복귀”의 선거이다.
469만 명 증가분 중 약 95%는 비동원자의 복귀로 설명된다. 효능감은 민주 진영을 깨웠고, 위기감은 보수 진영을 깨웠다.
2. 사전투표 ↔ 본투표는 단순한 시간차가 아니라 효능감 → 위기감의 릴레이형 추동이었다.
사전투표의 폭증 자체가 보수의 본투표 당일 위기감을 추동했다.
3. 출구조사 수치는 보정해서 읽어야 한다.
서울과 경남에서의 빛나간 예측은 'shame 보수' 응답 회피의 증거다. 보수층의 -13%p 축소는 실제 축소(7~9%p) + 응답 회피(약 4~5%p)의 합이다.
4. 광역단체장 분할 투표는 16개 시도에서 전부 작동했다.
민주당의 진짜 강점은 정당 브랜드가 아니라 후보 풀이다. 서울의 특이성은 “정원오가 덜 받은 것”이 아니라, “오세훈”이 더 많이 받은 것”이다.
5. 2030 여성에서 동원 약화 신호.
노스빅, 정청래의 “오빠” 발언, 정원오 후보 발언 누적이 표 이동이 아닌 투표 동기 약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.
6. 단일 지배 변수는 없다.
물가·정당·부동산·계엄·특검·주식이 모두 50% 이상 작동했다. 이번 선거는 다층적 동원의 결과이다.

공공정책·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

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/ 가장 정확한 조사
지자체,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,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, 선거컨설팅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, 정우빌딩 9층(여의도동 13-25)